

韓國中小工業의 特質

—獨立的 存立形態에 대하여—

黃 炳 晔

(一)

韓國에 있어서 中小工業의 特質의 하나를 나는 그 存立形態에서 求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獨立的 存立形態가 支配的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점은 日本이나 美國等과는 그 事情이 같지 않은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日本에 있어서는 請負工業(下請負工業)形態가 許多하고 또한 극히 重視되고 있다. 지금 松井辰之助教授의 所論에 따라서 「近時에 있어서의 中小工業의 諸類型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이 區分되고 있다. 즉,

『中小工業은 外部로 부터의 資本의 壓力 밑에 서 있는 工業이라고 하여 놓고 現段階에 있어서 資本의 壓力이 中小工業의 生産過程에 直接 미치지 않고 주로 流通過程에서 資本의 壓力作用을 받으면서 存立하는 것과 中小工業의 生産過程에도 關聯하여 資本壓力이 加해지는 것의 우선 두개의 中小工業群으로 大別하려고 한다. 前者는 獨立生産者로서의 中小工業群이고 後者는 從屬形態로서의 中小工業群인 것이다. 다시 後者인 從屬形態에 있어서의 中小工業은 商業資本에 支配되며 이에 隸屬되는 中小工業群과 生産資本에 直接으로 隸屬되는 中小工業群으로 二大細分할 수 있다고 본다. 이 最後者는 請負工이라고 包括적으로 呼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請負工業의 本質의 內容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先進國의 例를 보면 이 最後者에 해당하는 請負工業이 中小工業에 있어서 支配의 形態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支配的이라는 것은 반드시 量的인 意義가 아니라 質的인 面을 重視하고 싶다. 이리하여 日本의 藤田敬三教授가 引用하는 바를 보면 機械工業을 中心으로 한 軍需工業에 있어서의 請負制度의 急進展을 端的으로 表示하는 指標로서 1936年(昭和11年) 11月 商工省刊行的 「機械器具工業外註狀況調査」를 들고 있다. 즉,

『이 商工省外註狀況調査는 東京, 神奈川, 愛知, 大阪, 兵庫, 廣島, 福岡의 二府五縣의 年度末 職工數 30人以上の 工場主가 提出한 調査表에 의한 것으로서, 1936年度の 發註工場 571工場은 『二府五縣의 30人以上の 機械器具工場의 總數

1,209의 47.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同調査에 의하면 昭和7年度 및 8年度の發註工場數는 各各 506 및 541工場이고 工場生産額에 대한 外註金額의 比率는 11% 내지 13%를 나타내고 있다. 調査에는 外註以外에 既成品購入額이라는 項目도 있는데 이것을 廣義의 外註로 認定한다면 그 合計는 元工場生産額의 17% 内外가 되는 것이다……』라고 計數에 의하여 說明하고 있다.

第二次世界大戰後 日本工業에 있어서의 請負制度는 그 本質에 있어서 戰前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比重과 範圍가 더욱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伊東塾吉教授의 「中小企業論」속의 「戰後에 있어서의 下請制의 變化와 그 問題點」을 보면 아래와 같이 論述되고 있다. 즉,

『戰後の 從屬화된 日本獨占資本主義의 體制內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自由스러운 獨立的 發展의 餘地가 喪失되고 中小企業을 위한 民需市場이 壓迫되는 한편 中小企業者의 數는 中産階級의 失業, 半失業의 滯留場으로서 增加하여…… 그 生存을 維持하자면 좋건 싫건 獨占資本의 直接 間接의 收奪體系의 傘下에 下請으로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와 같은 體制的 構造的 矛盾에 立脚하고 있다. 더우기 巨大企業, 大企業에서 본다면 相對的 過剩人口와 過度競爭의 狀態에 있는 中小企業은 戰前・戰時와 같은 「恩惠」(이것은 非近代的인 收奪의 代價라기보다 條件이었다)를 베풀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끌라 잡을 수 있다」는 立場에서 있다. 따라서 戰前부터 戰後에 걸친 變化는 「近代化」의 外裝에도 불구하고 그 實質的인 兩者(元工場과 請負工場)의 關係의 本質은 다름없으며 非近代的인 「恩惠」만이 除去되고 不等價交換에 의한 收奪은 더욱 더욱 甚化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論述하고 있는 것이다.

確實히 日本工業에 있어서의 請負工業形態의 廣範圍한 存立과 또한 그것이 中小工業이 지니는 諸特質을 集中的으로 表現하고 있다는 점은 깊이 注目되어야 할 줄로 안다.

(二)

中小工業의 存立이 獨占資本의 發展과 密接不可分하게 關聯되고 있는 것이라면 美國과 같이 大工業이 發達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도 請負工業은 廣汎하게 存立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美國의 E. P. Schmidt博士 著 “Small business”속의 몇가지 例를 引用하면 다음과 같다. 즉,

『全國製造業者聯合會에서는 1942년에 軍需品 및 軍裝備의 大部分의 注文을 받고 있던 252會社中の 190會社에 대하여 調査하였다. 190會社의 1942年度(曆年)의 戰爭資材 및 軍需品の 契約高는 合計 262億弗에 달하였다고 報告하고 있다. 그 總額中 135億弗이 他社에 配分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同年의 190會社의 軍需事業總額

의 5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會社에서는 48州全域에 걸친 請負業者, 販賣業者 및 「사프라이어」(筆者註・納品業者)와 去來하고 있었다고 報告하고 있다. 그런데 請負業者, 販賣業者 및 「사프라이어」의 數는 모두 140,424名에 達하였다. 그러나 이 數字는多數의 業者가 前記한 190個의 會社中の 數個會社에서 請負를 받고 있으므로 상당히 重複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美國의 「다그라스」航空機製作會社에서는 約275百萬弗에 달하는 諸型의 下請負를 시키고 있다. 그와같은 外註는 約300의 主要請負業者에게 配分되고, 그것이 다시 적어도 1,500程度の 그 下位에 있는 請負業者에 再請負되고 있었다. 그 中에는 이러한 例도 있었다. 즉 20個의 다른 部分品으로서 成立되는 「발브」製造를 請負에 주었는데 그 請負業者는 다시 그 製作에 있어서 7名の 孫請負業者에게 發註하였다.…… 이 會社는 原料, 工作機械 및 機械設備의 購入範圍를 擴大하여 全國 48州에 8,000의 「사프라이어」를 使用하여 航空機製作을 위한 材料를 供給시킨 것이다.』

그리고 「제네랄·모타스」會社의 調査에 의하면 同社 37個의 製作部 및 單位製作所에 있어서는 그 部分品 및 材料에 관하여 18,375의 各種施設을 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네랄·모타스」會社의 「사프라이어」中에서 74%는 從業員 500名以下の 會社이고 또한 그 會社의 58%가 從業員 100名以下の 것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先進國에 있어서는 產業構造의 高度化, 大工業의 發達과 더불어 中小工業의 存立形態는 典型的으로 生産過程이 産業資本 및 獨占資本에 隸屬되는 請負工業形態가 支配의 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日本과 美國을 比較하였을 때 같은 請負工業形態라고 하지만 그 性格에 역시 差異가 없는 것은 아니다. 美國이나 英國에 있어서는 請負工業은 M. Dobb 教授에 따라 要約하여 말하자면 첫째로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大工業과 中小工業의 社會的 分業이라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急激한 需要增減에 대한 調節辦의 役割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大工業이 特殊한 部分工程을 請負를 주거나 또는 景氣變動에 따르는 需要의 一時的인 增加에 應하기 위하여 中小工業을 利用하는 것이다. 이는 戰時의 軍需生産에 있어서 가장 「티피컬」하게 찾아볼 수 있는 現象이라는 것이다. 이리하여 美國이나 英國에 있어서는 大工業과 中小工業이 對等한 立場에 서서 各己의 生産分野를 占據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生産規模가 다를 뿐이다.

그러나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中小工業이 大工業의 分業의 「시스템」속에 編入되는 것은 請負工場에 대한 收奪, 다시 말하면 그 低賃金を 노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兩者의 對等한 立場이 아니고 從屬性이 뚜렷하게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大工業이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部分工程을 中小工業에 請負를

주고, 또한 市場需要의 急激한 變動을 請負工場을 통하여 調節한다는 점은 美·英國等과 다름이 없으나, 그러나 그 過程에 있어서 모든 不利한 「주름살」이 結局 中小工場에 오게 되는 것이다. 請負工場에 대한 元工場의 代金支拂遲延은 그 一例인 것이다. 그리고 中小工業은 一般的으로 資本의 有機的 構成이 낮으므로 거기에 從事하는 多數의 勞動者나, 한거름 나아가서 再請負過程에 있어서의 특히 手工의 家內工業의 勞動者의 低賃金(cheap labor)으로써 이를 「카버」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그럴 수록 中小工業의 大工業에 대한 從屬性은 더욱 深化되는 것이다.

(三)

그러나 韓國의 中小工業에 있어서는 先進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請負工業의 存立形態는 비교적 드물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形態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서울 近郊의 安義에 있는 起亞産業株式會社의 製造工場(自轉車 및 三輪車製造)에서는 全生産過程의 約2割 내지 3割은 外註에 依存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1割程度의 海外(日本)輸入品の 使用이 包含되어 있다고 한다. 이리하여 元工場과 請負工場 등에서 生産, 納品하는 部分品을 組立하여 「三千里號」라는 國產自轉車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外註의 例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請負工業의 存立形態가 先進國처럼 支配的이 못되는 理由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관하여 韓國의 特殊한 理由가 몇가지 있다고 본다. 그것은 要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韓國은 機械化된 大工業의 發達이 뒤늦어 있다는 것이다. 1958年 3月末日 現在의 「全國鑛業 및 製造業事業體調査」(產銀刊行)에 의하면 從業員數 100名以上の 大工業이 事業體數에 있어서 2.5%에 不遇하며 이를 附加價值에서 보면 44%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小數의 大工業이 生産에 있어서 큰 比重을 차지하는 反面에 中小工業은 小額의 生産을 하면서 群生亂立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兩者의 聯關性이 깊지 않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大工業에 있어서도 請負工程을 미쳐낸 與件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機械器具工業의 發達이 극히 低調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基礎工業에 속한다고 하는 大工場을 보더라도 板 유리工場(仁川) 鋼鐵工場(仁川) 시멘트工場(三陟·聞慶) 肥料工場(忠州)等이며 그것은 化學工業내지 窯業에 들어 가는 것이 大部分이고 大規模의 機械器具工場이 稀少한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韓國工業의 構造的 後進性에 緣由하는 問題라고 할 수 있다.

(3) 이제 機械工業部門을 보면 朝鮮機械製作所(仁川)와 같은 비교적 大規模工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生産過程이 실제로 部分品の 互換性(interchangeability)

이나 製品의 一品生産(one type production)에 立脚한 大量生産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手工의 生産方式에 의한 各種製品部門이 統合되어 全體的인 工場이 構成, 存立하고 있다고 하겠으므로 外註의 餘地가 거의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4) 그리고 더욱 重要한 理由는 韓國의 大工業이 例外없이 1953년의 休戰以後에 海外의 經濟援助資金으로서 投資의 一部 또는 全部의 뒷받침을 받아 建設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短期間에 全生産過程이 일단 體系있게 完成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民間企業이 長期間에 걸쳐 資本蓄積과 더불어 生産過程을 段階의 으로 혹은 部分的으로 建設, 擴充하는 경우와는 스스로 事情이 다른 것이다. 그 結果 大工業과 中小工業은 生産過程에 있어서나 또는 技術의 相互關聯性없이 存立하게 된다. 大工業이 中小工業에 部分工程을 依存할 必要도 없거니와 反對로 中小工業이 大工業의 生産過程에 滲透할 餘地도 없다. 그야말로 大工業은 大工業대로 中小工業은 中小工業대로 獨立的으로 存立하여 그 間に 密接不可分の 關聯性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다.

(5) 끝으로 韓國工業은 製品에 대한 急激한 需要增減의 影響을 받을 可能性이 적다는 것이다. 軍需工業의 發達이 전혀 없다는 것도 重要한 理由가 되거니와 한편 大工業의 製品은 生産財·消費財할 것없이 그 販賣市場이 國內가 爲主이고 海外市場에 대한 依存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工業製品에 있어서는 (例·毛織物) 軍納이나 輸出이 漸次로 增加되는 傾向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不時的의 것이거나 혹은 外註를 不可避하게 하는 急激한 需要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리나라 中小工業이 獨立的 存立形態를 가지는 또 하나의 理由가 있는 것이다.

以上을 要約하자면 우리나라 中小工業의 特質은 그 存立形態에 있어서 본다면 先進國과는 달리 獨立的 存立形態가 支配的이고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視角을 달리하여 보면 韓國에 있어서도 물론 生産過程이 商業資本의 支配를 받거나 또는 流通過程에서 資本의 壓力을 받는 中小工業의 存立形態가 許多하게 있는 것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가령 都市의 家具製造業, 寢具製造業等은 生産過程을 中心으로 한 前者의 例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近代化된 家內工業의 경우는 後者의 一般的인 例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産業資本이나 獨占資本에 의한 大工業과의 請負工業形態와는 역시 距離가 먼 것이다.

이렇듯 韓國의 中小工業의 特殊性을 그 存立形態에 있어서 究明할 때 그것이 全般的인 韓國工業의 後進의 一斷面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